

간호대학생의 삶의 목적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소명의식과 삶의 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성희¹ · 이영진²아주대병원¹, 아주대학교 간호대학²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Purpose in Life on Quality of Life: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Consciousness of Calling and Satisfaction with Life

Park, Sunghee¹ · Lee, Youngjin²¹Ajou University Hospital²College of Nursing, Ajou University

Purpose: The study was done to examine whether consciousness of calling and life satisfaction have a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purpose of life and their quality of life.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171 nursing students studying in two colleges of nursing located in Chungcheong and Gyeonggi Province. Measurements included the purpose in life questionnaire, Korea-version WHOQOL-BREF questionnaire, brief calling scale and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techniques with SPSS 24.0. Mediation analysis was performed according to the Baron and Kenny method and Sobel test.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purpose in life, consciousness of calling, satisfaction with life and quality of life. Consciousness of calling and satisfaction with life showed perfect mediating effec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urpose in life and quality of life. **Conclusion:** In this study, nursing students' purpose in life had significant influences on nursing students' quality of life via calling consciousness and satisfaction with life. Therefore, to enhance quality of life for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build effective strategies and education programs to enhance nursing students' purpose in life, consciousness of calling and satisfaction with life.

Key Words: Nursing students, Quality of life, Purpose in life, Consciousness of calling, Satisfaction with life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은 타 전공자와 비교하여 상대

적으로 삶의 질이 낮다는 보고가 있다[1]. 다른 학과 재학생에 비해 엄격한 교육과정, 과중한 학업부담감, 임상실습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 그리고 삶의 질 저하가 나타나는 것이다[1-3]. 삶의 질은 '삶 전체에 대해서 느끼는 만족감의 주관적 평가'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이

주요어: 간호대학생, 삶의 목적, 소명의식, 삶의 만족, 삶의 질

Corresponding author: Lee, Youngjin

College of Nursing, Ajou University, 164 World cup-ro, Yeongtong-gu, Suwon 16499, Korea.
Tel: +82-31-219-7011, Fax: +82-31-219-7020, E-mail: yjlee531@gmail.com

-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 신진연구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NRS-2017R1C1B2012357).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NRS-2017R1C1B2012357).

Received: Mar 16, 2018 | **Revised:** May 16, 2018 | **Accepted:** May 27, 2018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모두 포괄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다[4]. 따라서 삶의 질은 단순히 개인적인 생활의 만족감 차원을 넘어 장기적으로 직업인으로서의 삶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5].

간호대학생은 대학 졸업 직후 대부분 간호사로 사회에 진출하게 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삶의 질이 낮을 경우, 대학생활 동안 전공과목에 대한 만족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도 전문직업인으로서 사회 적응력이 낮아지고, 자신의 직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형성하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4]. 앞으로 임상현장에서 타인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애써야 할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삶의 질은 곧 간호대상자인 환자라도 깊게 연관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간호교육의 궁극적 목표인 대상자의 안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초석으로 간호대학생의 삶의 질을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의 삶의 질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임상실습 및 과중한 학업량에서 오는 학업 스트레스[1], 경제문제 및 장래문제, 가치관문제와 같은 당면과제로 인한 생활 스트레스[2,6], 대인관계[6], 건강상태[2] 등 간호사 자신을 둘러싼 외부적 및 신체적 요인이 주로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삶의 질은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판단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7]. 이에 비추어 보면 그간 간호대학생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생활, 학업, 취업과 관련된 스트레스 등 여러 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각 개인의 주관적 판단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개인 차원의 태도 변인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어지지 않아 이러한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인생의 과도기적 단계이며 학업과 진로가 중요한 시기인 대학생들은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8]. 대학생이 높은 수준의 삶의 의미를 갖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우울감을 보이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희망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9]. 또한, 비행 청소년의 우울과 삶의 목적에 대한 연구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 실패한 청소년들은 인생의 방향과 목적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무의미감과 좌절 속에서 무기력적이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거나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며 바람직하지 못한 해결방향을 취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10]. 근로자, 입원 환자 대상 연구에서도 삶의 목적[11], 삶의 만족과 소명의식 등이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12-14].

최근 성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결과, 직장인이 자신의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소명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을 직장인의 행복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전략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15]. 특히, 소명의식은 직무활동의 질

적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며 직업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삶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다[16].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겪고 있는 삶의 질의 저하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에 있어 간호교육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학습 부담감, 여가시간 부족, 건강상태 등의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차원이 태도변인인 삶의 목적, 소명의식, 삶의 만족 등의 요인이 간호대학생의 삶의 질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인 차원의 태도 변인과 삶의 질과의 연관성에 살펴보고자 한다. 즉, 간호대학생의 삶의 목적, 소명의식, 삶의 만족이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인 삶의 질 향상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인식한 삶의 목적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소명의식과 삶의 만족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삶의 목적, 삶의 질, 소명의식 및 삶의 만족 수준을 분석한다.
- 간호대학생의 삶의 목적, 삶의 질, 소명의식 및 삶의 만족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간호대학생의 삶의 목적이 삶의 질에 영향하는 과정에서 소명의식과 삶의 만족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삶의 목적, 소명의식, 삶의 만족, 그리고 삶의 질 수준을 확인하고,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국내 S시와 J군에 소재한 2개 대학 간호학과 재학생을 편의 표집하였다. 표본의 수는 G*Power 3.1.6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유의수준 .05, 중간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예측변수 9개(독립변수 3개, 일반적

특성 6개)를 지정하였을 때, 표본 크기는 166명으로 나타나 탈락률 10%를 고려해 총 183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이 중 177부(96.7%)가 회수되었고, 일부 항목의 응답누락이 있었던 6부를 제외하고 총 171부(93.4%)를 최종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1) 삶의 목적

삶의 목적을 특정하기 위해 Boyle 등[17]이 개발한 Purpose in Life (PIL) 도구를 사용하였다. PIL은 총 10문항의 이분형 척도로 총 점수는 최저 0점에서 최고 1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목적이 뚜렷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분형 척도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위해 사용되는 Kruder-Richardson Formula 20를 확인하였고 신뢰도는 .64였다.

2) 삶의 질

삶의 질은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측정 단축형 도구(Korea version of WHO Quality of Life Scale Abbreviated Version, WHOQOL-BREF)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Korea version WHOQOL-BREF는 전반적인 삶의 질과 건강(overall quality of life and general health)을 측정하는 2개 문항과 신체적 건강 영역(7문항), 심리적 영역(6문항), 사회적 관계영역(3문항), 환경 영역(8문항)으로 구성되며, 총 26개 문항이다.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전혀 아니다'는 1점, '약간 그렇다'는 2점, '그렇다'는 3점, '많이 그렇다'는 4점, '매우 많이 그렇다'는 5점으로 측정한다. 질문 중 3, 4, 26번 문항은 부정 문항으로 역환산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Park과 Shim [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2였다.

3) 소명의식

소명의식은 Dik 등[18]의 간편 소명척도(Brief Calling Scale, BCS)를 Shim과 Yoo [14]가 변안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도구의 개발자와 변안한 저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초월적 부름-존재, 목적/의미-존재, 친사회적 지향-존재의 3개 하위척도로 각 4문항씩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1점에서 '전적으로 해당된다' 4점의 Likert식 4점 척도로 8번 문항은 역채점 문항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소명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Shim과 Yoo [1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4) 삶의 만족

삶의 만족은 Diener 등[20]이 개발하고 An과 Suh [21]가 사용한 삶에 대한 만족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Shim과 Yoo [19]가 6점 척도로 평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의 삶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Shim과 Yoo [1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5였다.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연구 진행 전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승인번호 KNUTIRB 2017-50)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자료수집은 온라인 설문인 survey monkey를 활용하여 2017년 6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 수행되었다. 먼저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 대상 학교 간호학과와의 협조를 얻어 연구의 목적과 자료수집을 위한 참여 방법 등을 구두로 설명하고 서면으로 된 연구 설명서를 배부하였다. 연구 설명서를 통해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사항(연구참여로 인한 이득과 손실, 연구참여를 중도에 중단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 등)을 안내하였다. 그리고 연구참여 희망자에 한하여 서면 동의를 득한 후 연구정보에 대한 문자 안내문 발송을 위한 연락처 정보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를 넣을 수 있는 회수 봉투를 제공하여 밀봉 제출토록 하였다. 이 때, 학생의 연구 및 설문 참여 여부에 따른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참여자와 무관한 타 학교 소속의 공동연구자가 연구 설명을 수행하고, 동의서 배부 및 회수에 참여하였다. 대상자가 기재한 연락처로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응답 방법이 포함된 온라인 설문조사 안내포스터와 함께 응답용 URL을 문자로 안내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자발적으로 Survey monkey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를 통해 개별적으로 설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설문 및 참여자 정보는 비밀보호가 유지되도록 아이디로 저장하고, 대상자 명단은 별도로 관리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프로그램(Version 24.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자료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삶의 목적, 소명의식, 삶의 만족,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검증하였다. 삶의 목

적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소명의식 및 삶의 만족의 매개효과는 단순 및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는 Baron과 Kenny [22]의 절차를 통해 검증하고, Sobel test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와 Kruder-Richardson Formula 20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142명(83.0%)이었으며, 학년은 2학년과 4학년이 각각 49명(28.8%)으로 많았다. 직전 학기까지의 성적은 평균 3.5~3.9점 65명(39.6%), 3.0~3.4점 64명(39.1%) 순이었다. 취미는 과반수인 91명(53.2%)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종교는 69명(40.6%)이 있다고 하였다. 대상자의 성장 지역은 충청도가 92명(53.5%), 수도권 46명(27.1%)이었으며, 그 외 강원도, 경상도 등 전국적인 분포를 보였다(Table 1).

2. 삶의 목적과 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삶의 목적 평균은 4.25 ± 0.16 점, 소명의식 2.69 ± 0.64 점, 삶의 만족 3.67 ± 0.90 점, 삶의 질 3.43 ± 0.53 점으로 분석되었다. 상관분석 결과, 삶의 목적은 소명의식($r = .28, p < .001$), 삶의 만족($r = .30, p < .001$), 삶의 질($r = .20, p = .008$)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소명의식은 삶의 만족($r = .33, p < .001$), 삶의 질($r = .40, p < .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삶의 만족과 삶의 질($r = .70, p < .001$) 또한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2).

3. 소명의식과 삶의 만족의 매개효과

삶의 목적이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소명의식과 삶

의 만족이 끼치는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세 단계의 회귀방정식을 진행하였다. 소명의식과 삶의 만족의 매개효과 검증 전, 아래의 조건에 대한 충족여부를 확인하였다. Durbin-Watson 지수는 소명의식에서 1.97~2.12로 분석되었고, 삶의 만족에서는 1.88~2.21로 확인되어 잔차의 자기상관은 없는 것으로 조건을 충족하였다. 공차한계는 소명의식 0.92, 삶의 만족 0.91로 0.1 이상으로 도출되었다. 분산 팽창요인은 소명의식은 1.09, 삶의 만족은 1.10으로 모두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에 대한 문제는 없었다. 또한, 잔차 분석결과, 두 모형의 선형성, 오차의 정규성, 등분산성이 확인되었다. 두 모형의 방정식 1은 독립변수인 삶의 목적에 대한 매개변수인 소명의식, 삶의 만족 각각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방정식 2는 삶의 목적을 독립변수로,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후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삶의 목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7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29 (17.0)
	Female	142 (83.0)
School year*	1st	33 (19.5)
	2nd	49 (28.8)
	3rd	39 (22.9)
	4th	49 (28.8)
Grade point average*	≥ 4.0	21 (12.8)
	3.5~3.9	65 (39.6)
	3.0~3.4	64 (39.1)
	2.5~2.9	10 (6.1)
	< 2.5	4 (2.4)
Hobby	Yes	91 (53.2)
	No	80 (46.8)
Religion*	Yes	69 (40.6)
	No	101 (59.4)
Growing area	Metropolitan	46 (27.1)
	Gangwon	8 (4.7)
	Chungcheong	92 (53.5)
	Gyeongsang	18 (10.6)
	Others	7 (4.1)

*Missing data excluded

Table 2. Level of Correlational Relationships of Variables

(N=171)

Variables	M \pm SD	Purpose in life	Consciousness of calling	Satisfaction with life	Quality of life
		r (p)	r (p)	r (p)	r (p)
Purpose in life	4.25 \pm 0.16	1	.28 (<.001)	.30 (<.001)	.20 (.008)
Consciousness of calling	2.69 \pm 0.64		1	.33 (<.001)	.40 (<.001)
Satisfaction with life	3.67 \pm 0.90			1	.70 (<.001)
Quality of life	3.43 \pm 0.53				1

적이 삶의 질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을 확인하였다. 방정식 3은 매개효과 검증에 위하여 독립변수인 삶의 목적, 매개변수인 소명 의식, 삶의 만족, 그리고 종속변수인 삶의 질에 대해 회귀분석을 하였다(Tables 3, 4). 연구결과, 삶의 목적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소명 의식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고($Z=3.11, p=.002$) 삶의 만족도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Z=3.90, p<.001$). 결과적으로 삶의 목적이 삶의 질에 영향하는 과

정에서 소명 의식, 삶의 만족이 각각 완전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Figure 1).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삶의 목적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개인이 인식하는 소명 의식과 삶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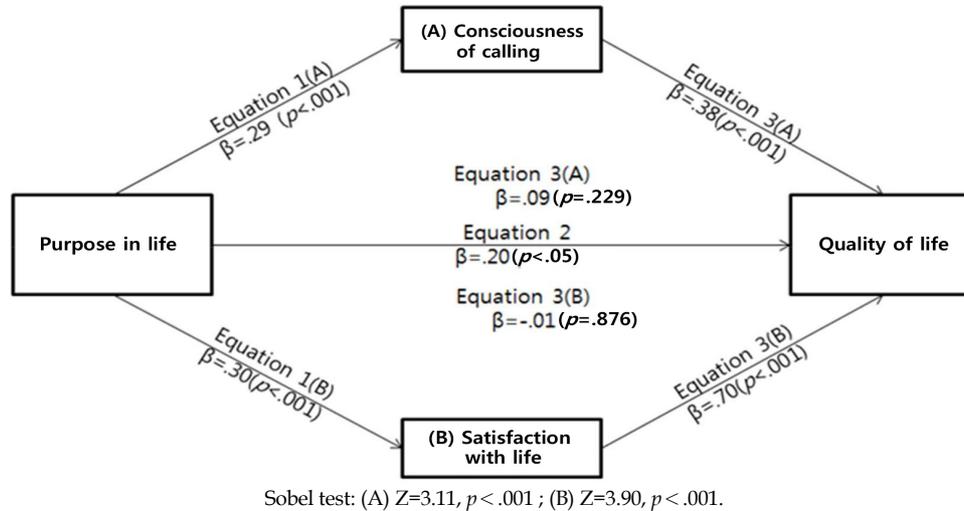


Figure 1. Model showing the influence of purpose in life on quality of life, and the mediating effect of consciousness of calling and satisfaction with life.

Table 3. Mediating Effect of Consciousness of Call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urpose in Life and Quality of Life (N=171)

Variables	B	β	t	p	R ²	Adj. R ²	F	p
1. Purpose in life → Consciousness of calling	1.17	.29	3.91	<.001	.08	.08	15.31	<.001
2. Purpose in life → Quality of life	0.66	.20	2.61	.010	.04	.03	6.79	.010
3. Purpose in life, consciousness of calling → Quality of life					.17	.16	16.76	<.001
Purpose in life → Quality of life	0.30	.09	1.21	.229				
Consciousness of calling → Quality of life	0.31	.38	5.07	<.001				

Table 4. Mediating Effect of Satisfaction with Lif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urpose in Life and Quality of Life (N=171)

Variables	B	β	t	p	R ²	Adj. R ²	F	p
1. Purpose in life → Satisfaction with life	1.70	.30	4.13	<.001	.09	.09	17.06	<.001
2. Purpose in life → Quality of life	0.66	.20	2.61	.010	.04	.03	6.79	.010
3. Purpose in life, satisfaction with life → Quality of life					.49	.48	78.58	<.001
Purpose in life → Quality of life	-0.03	-.01	-0.16	.876				
Satisfaction with life → Quality of life	0.41	.70	12.02	<.001				

만족 수준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삶의 질에는 개인의 태도 중 삶의 목적, 소명의식, 삶의 만족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 선행연구 중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교사, 근로자 대상 연구들에서 [13, 23] 대상자가 인식하는 삶의 의미, 소명의식, 삶의 만족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삶의 질을 높게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을 보였다. 또한 국내 간호대학생 중 일상에 감사하는 태도를 갖을수록, 그리고 우울, 분노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성향을 보일수록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더욱 높게 부여한다는 것과 유사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24]. 이는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삶의 질 영향요인을 비교한 연구[1]에서 대학생들이 학업, 건강, 취업, 여가활동의 긍정적 경험을 통해 삶의 만족을 느끼게 되며,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과와도 유사하게 해석될 수 있다. 종합해 보면 본 연구에서 개인의 태도 및 성향이 삶의 질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간호대학생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환경 조성과 함께 개인 스스로 자신의 삶과 직업에 대한 의미를 찾고, 만족감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근거로써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삶의 목적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소명의식은 완전 매개효과가 있었다. 해석하면 간호대학생 스스로 삶의 목적이 뚜렷하며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소명의식을 갖출수록 자신의 삶의 질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을 조사한 연구에서[25] 대부분의 학생들이 남을 돕는 것을 본인의 소명으로 여겨 간호사가 되고자 하고 이러한 소명의식이 삶의 목적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이 삶의 목적과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었으며, 삶의 질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국내 간호대학생의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과 임종간호 태도 관련 연구[26]에서, 개개인이 갖춘 영성과 삶의 의미에 따라 대상자 간호와 밀접한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과 임종간호 태도가 긍정적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개개인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대상자를 대하는 태도와 간호의 질에도 개인의 태도 관련 변인들이 중요한 영향요인이 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에 간호대학생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간호교육의 한 프로그램으로 간호대학생의 삶의 목적과 소명의식을 고취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간호대학생의 삶의 만족 수준은 삶의 목적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 자신이 수립한 삶의 목적에

따른 만족도가 중요한 영향요인이며 삶의 목적이 뚜렷할수록 삶의 만족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석해 볼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의미를 살펴본 연구[27]에서, 개인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기 자신의 삶에 더욱 높은 의미와 가치를 둔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교사[23], 일반 직업인[28] 대상 연구에서, 삶의 만족이 삶의 질의 주요 영향요인임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주목하여 간호대학생의 삶의 만족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방안을 통해 궁극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간호대학생의 삶의 목적, 소명의식, 삶의 만족, 삶의 질 간의 관계가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간호대학생의 삶의 목적, 소명의식,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을수록 삶의 질을 높게 인식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학부수준의 간호교육 중에도 삶의 의미와 목적의식을 갖고, 소명의식과 전문 직업의식을 함양 시킬 수 있는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대학생생활 중의 만족도를 높이는 다양한 중재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과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인 변수를 추가적으로 고찰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포괄적인 시각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대학생 및 전문직업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태도 및 성향과 관련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동일 집단 대상에서 얻은 결과를 활용하여 보다 폭넓은 비교 및 논의가 제시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 집단과의 비교가 어려워 대학생 이외의 전문직 교사, 직장인 등과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이에 국내 대학생 및 간호대학생, 보건의료직종 종사자 등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외부적 환경과 내부적 성향 요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찰하여 연구결과를 확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성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삶의 목적을 간명하게 측정하기 위한 표준 도구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 Boyle 등 [17]이 개발한 이분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Boyle 등[17]의 연구에서는 해당 도구를 지역사회 노인에게 적용하여 삶의 목적 수준을 평균 3.7점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삶의 목적은 평균 4.2점으로 이보다 높은 수준이기는 하나 다른 대상자에게 적용된 연구로 직접적인 비교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삶의 목적 도구를 간호대학생에게 적용한 부분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며 성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Boyle 등[17]의 삶의 목적 도구를 적용하기 위한 도구의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다양한 대상자에게 삶

의 목적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동일 집단에서의 삶의 목적 연구결과 비교 및 해석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간호대학생에게 적합한 삶의 목적 측정도구를 활용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삶의 목적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소명의식과 삶의 만족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삶의 목적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소명의식과 삶의 만족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완전 매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에 간호대학생이 자신의 삶에 대한 목적의식을 명확히 수립하고, 전문직으로써의 소명의식을 갖추어 현재 삶에 대한 만족감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부 수준의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REFERENCES

- Park BY, Shim OS. Predictors of quality of life in nursing students and general colleg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6;16(11):811-830.
- Park GJ, Bae YS, Son KH. A convergence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2017;8(6):65-73.
- Bampi LN, Baraldi S, Guilhem D, Pompeu RB, Campos AC. Nurse undergraduate students' perception of quality of life. *Revista Gaucha de Enfermagem*. 2013;34(2):125-132.
- Baek WJ, Suh TS.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quality of life on suicide ideation in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Health and Welfare for Elderly*. 2010;2(2):15-33.
- Son BH, Kim YM, Jun IG. A study on nursing students' job-esteem, work values, and satisfaction of their major.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011;20(3):240-249.
- Song YS. Stressful life events and quality of lif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2;18(1):71-80.
<https://doi.org/10.5977/jkasne.2012.18.1.071>
- Gibbons C, Dempster M, Moutray M. Index of sources of stress in nursing students: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09;65(5):1095-1102.
<https://doi.org/10.1111/j.1365-2648.2009.04972.x>
- Misra R, McKean M. College students' academic stress and its relation to their anxiety, time management, and leisure satisfaction. *American Journal of Health Studies*. 2000;16(1):41-51.
- Mascaro N, Rosen DH. Existential meaning's role in the enhancement of hope and prevention of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Personality*. 2005;73(4):985-1013.
<https://doi.org/10.1111/j.1467-6494.2005.00336.x>
- Kim JK, Son CN. The effects of logotherapy on depression, purpose in life, and delinquency impulsivity of juvenile delinquent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7;26(1):1-19.
- Park JS, Rho SH. Quality of life level in the patients with the sequelae of traumatic brain injury.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1998;37(4):640-649.
- Sihn M, Jeon SH, Yoo MS.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and wellbeing in youth.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0;17(9):131-150.
- Ko JS, An SB. The influence on QOL of calling and the modification effects of social support 2017: Proceedings of 2017 Spring Conference of the Daehan Associat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Korea; May 2017. p. 629-643.
- Jang JY, Lee JY.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ing a calling and life satisfaction: the mediating effects of work meaning, living a calling, life meaning, and job satisfaction.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014;15(1):2590278.
<https://doi.org/10.15703/kjc.15.1.201402.259>
- Ye JE, Chin H, Seo EJ, Kim MJ, Ryu JS. Talk about the happiness of the workers in South Korea [Internet]. CEO Information. No. 898.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updated 2013 June 12; cited 2018 March 10]. Available from: http://www.seri.org/db/dbReptV.html?g_menu=02&s_menu=0202&pubkey=db20130612001
- Lea EK.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youth work as a vocation and attendant levels of job satisfaction. *Studies on Korean Youth*. 2011;22(1):115-140.
- Boyle PA, Barnes LL, Buchman AS, Bennett DA. Purpose in life is associated with mortality among community-dwelling older persons. *Psychosomatic Medicine*. 2009;71(5):574-579.
<https://doi.org/10.1097/PSY.0b013e3181a5a7c0>
- Dik BJ, Eldridge BM, Steger MF, Duffy RD.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 (CVQ) and Brief Calling Scale (BC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012; 20(3):242-263. <https://doi.org/10.1177/1069072711434410>
- Shim YR, Yoo SK.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 (CVQ-K).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12;24(4): 847-872.
- Diener E, Emmons RA, Larsen RJ, Griffin S.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1985;49(1): 71-75.
- An SN, Suh EG. Causal relation between self discrepancy and life satisfaction on self construal. Proceedings of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2006 August: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6. p. 416-417.

22. Baron RM, Kenny DA.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86;51(6):1173-1182.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23. Jang JY, Lee JY. The relation between perceiving a calling and life satisfaction: the mediating effects of work meaning, living a calling, life meaning, and job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14;26(1):123-146.
24. Park YR, Wee H. The influence of purpose in life, gratitude, and depression on anger in nursing college student.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3;15(5):2685-2700.
25. Prater L, McEwen M. Called to nursing: perceptions of student nurses. *Journal of Holistic Nursing*. 2006;24(1):63-69.
<https://doi.org/10.1177/0898010105282511>
26. Sim MK, Park JM. The influence of spirituality, meaning in life and hospice perception on attitudes towards terminal car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7;18(7):290-299.
27. Kang EH, Kim MY. Good death, self-esteem, and attitude to lif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ealth Sciences*. 2017;14(1):1-10.
28. Kwon SY, Kim MS. The effect of vocational calling on life satisfaction: Gender differences in mediating effect of meaning in lif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16;21(1): 151-171.